

투데이 칼럼

“부안군 공무원들 고생 많았소”

어 화 세상 벗넌네야, 북반으 러 마실가세!’를 주제로 펼쳐진 “2017 부안마실축제”가 전국 10대 축제로 발판이 마련되어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그간 고생 많았다고 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대표축제로 거듭나려고 문화관광과 최연근과장을 비롯한 마실 축제 T/F 팀은 물론 700여 전 직원들이 땀을 흘려 이뤘다.

이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축제장 주 메인무대 동선으로 연결된 접근성이 쉽게 확보하는 한편 그늘막과 워터자갈 설치, 관광객과 탐방객들에게 만전을 기해 지난해 축제보다도 완벽하게 치러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조성을 하려고 아 간에 오복을 테마로 한 시가지에 토끼이리 경관 조형터널 등을 설치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10대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이 입증됐다.

주행사장인 부안을 서부터미널 메인무대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예술 축제, 전시·판매 및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즐거움으로 안겨 주었다.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부안군 13개 읍면별 특색을 살리고 ‘부래만복(扶來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는다)’의 고장 부안의 오복을 표현

한 ‘복 받는 날 퍼레이드’가 최고의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안의 대표적인 제사유적인 수성당 개량 합비에 관한 설화를 주제로 공연을 펼치고 개막식에서는 부인이 낳은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인 이매창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쳐 문향 생거부안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했다.

‘뮤지컬 갈라쇼’, ‘마실 열린 음악회’, ‘부안 맑은 물총 페스티벌’, ‘부안 마실 청소년 플래시몹’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인 400여 명이 부

안을 찾아 글로벌 축제로 발판이 마련됐다.

13개 읍·면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오색찬, 연(宴) 퍼레이드와 부안 맑은 물총 페스티벌, 오복기원 위도 띠 밧놀이 재현, 마실 전통문화놀이, 얼씨구나 좋구나 대동한 마당 등 대표 프로그램은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로 치러 졌다.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축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우러져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질적 수준과 성장속도를 고려해가며 조화롭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90여 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국 어느 축제보다 성공적으로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창학 축제팀장의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고 박수를 보낸다.



이옥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독자제언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 1차로는 추월하고 정속으로 운행할때는 다시 2차로로 추월차로로 변경하여 운행해야 하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편도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다.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추월차로,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추월차로이며, 4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가 대형승합차와 1.5톤이하 화물차 전용, 4차로가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추월차로다.

보통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운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

반이다.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때만 사용해야한다. 혹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더 빠르게 추월하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후 추월을 시도하고 추월한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한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은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4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된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박규성 교정경찰서 교통관리계

독자제언

스쿨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학교 앞을 지나가다 노란 색의 ‘스쿨존(SCHOOL ZONE)’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필요시 500미터)이내 도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이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과 불법주차, 어린이

무단횡단 등을 들 수 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며 과속을 할 경우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을 하는 학부모들과 하갯길에 자녀를 기다리며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신의 아이들이 안전해야할 스쿨존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 스스로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일자리 창출 성적표 또다시 궁금하다

전북도에 물어볼 것이 있다. 또다시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궁금하다. 최근의 보도를 보니 역시나 실망스럽다.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가 늘기는 고사하고 노인을 위한 생색내기 일자리만 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다는 불만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전북도는 미취업자들의 정서를 헤아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거듭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결과적으로 식언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는 사실을 통해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을 터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보다는 나빠지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북도는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청은 일자리 구하기에 목이 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관청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줄고 고용의 질도 열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저번에 본보의 사실이 지적했던 그대로 도내 젊은이들의 40%가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있다는 오늘날이다. 전북도는 젊은이들의 고갈은 정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취업자들을 비롯해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역지사지하라는 당부이다.

지금은 지역 발전을 챙길 때이다

지금은 지역 발전을 챙길 때이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므로 다 함께 지역 발전 현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 마을 한 뜻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요동치는 대선 정국이라서 그런지 각당의 모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며 과속을 할 경우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을 하는 학부모들과 하갯길에 자녀를 기다리며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신의 아이들이 안전해야할 스쿨존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 스스로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순경

다들 귀가 솔깃해지는 소리들이다. 그래도 여기 분명히 말해 줄 것이 있다. 그 대체로운 형용의 약속들이 나중에 공중에 뜬 신기투가 되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 당연한 말을 또 반복하거나와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기를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역적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든 우리 지역의 몫을 온전히 챙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 관심사의 면면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양했다. 5대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농생명산업도시로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금융산업도시로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약속하는 소리도 있었고, 특화산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